

## 에체베리아와 독립전후의 아르헨티나

배 지 완  
단독/고려대학교

**Bae, Ji-Wan(2004), Echeverría y la Argentina antes y después de la emancipación. Revista Iberoamericana, 15, 89-110**

Esteban Echeverría es el fundador del romanticismo hispanoamericano. Después de una estancia en Europa vino a convertirse en el líder de la generación del 37, grupo de jóvenes argentinos que se esforzaron por construir las bases de una nación recién emancipada, enfrentando a la dictadura de Rosas bajo el espíritu de la Revolución de Mayo. La mayoría de sus miembros terminaron proscritos así como el autor de *El matadero*. En las obras literarias de Echeverría manifiesta su ideario político-cultural, los derechos individuales, la fe en el progreso y la emancipación del espíritu americano, sobre todo su amor hacia América. El autor nos revela claramente la situación histórica de la Argentina de los tiempos de Rosas, en los que el país se vió manchado por las sangrientas batallas entre los dos partidos en pugna, federales y unitarios. Echeverría fue un literato y un hombre de acción que anhelaba el progreso de su país, aunque su ideario tampoco logra superar el dilema raza (blanca) y clase (criolla) al igual que sus compañeros, Sarmiento y Alberdi.

**Key Words:** Echeverría/ *El matadero*/ La novela argentina/ Romanticismo, 에체베리아/ 『도살장』/ 아르헨티나 소설/ 낭만주의

### I. 서론

아르헨티나의 독립과 함께 찾아 온 분열과 독재라는 혼란의 시기는 여러 명의 영웅들을 탄생시켰다. 이들은 마르티가 말하던 태양과 같은 완벽한 영웅들은 아닐 지라도 자신들의 국가를 사랑하고 국가가 처한 상황을 진단하고, 유럽이나 미국과 같이 발전된 국가의 미래를 만들어

보고자 토론하고 실천했던 젊은이들이었다. 이들 젊은이들이 활동하던 그룹 중에서 대표적인 그룹이 37세대라고 불리기도 하는 오월협회(Asociación de Mayo)이다. 에스페반 에체베리아(1805-1851)는 이 협회에서 중심적 활동을 하던 작가이다. 그는 아르헨티나가 독립을 이루기 직전에 태어나 국가의 분열과 내란의 시대에 청소년기를 보내고, 청년기에는 로사스의 독재정치기간 내내 정부에 대한 투쟁을 하였으며, 망명지에서 가난과 병마와 싸우다 4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불운한 시인이다. 역사적 격동의 시대는 기타를 치며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뒷골목을 배회하고 싸구려 사랑을 찾아다니던 이 젊은이를 낭만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시인으로 남겨두지 않았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시대는 방황하는 이 젊은이를 정치사상가로 만들었고, 한 국가를 상상하는 그의 문학적 감수성과 지성은 국가문학형성기에 아르헨티나문학의 초석이 되었다.

에스페반 에체베리아의 소설 『도살장 *El matadero*』는 그의 시 『포로 여인 *La cautiva*』와 함께 당시 아르헨티나의 작가들이 고민하는 주제, 언어, 인물, 환경, 그리고 독립 후 아르헨티나가 갖고 있던 정치적 문제들을 잘 드러내고 있다. 특히 작가는 소설의 공간을 통해 그의 문학적 탁월함을 보여주며 로사스정권하에서 벌어지는 가공할 만한 역사적 사실들을 고발하고 있다. 작가는 『도살장』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지저분한 변두리를 배경으로 설정하여 당시 독재정권과 사회가 보여주는 집단적인 폭력의 분위기의 재현할 뿐만 아니라 문학적으로도 새로운 미학적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소책자 혹은 팸플릿, 아르헨티나의 첫 낭만주의 단편소설, 혹은 때 이른 자연주의소설 등으로 구분되기도 하는 그의 소설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면서도 때로는 서로 모순적이기까지 하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적이고 모순적인 미학을 보여주는 이 작품은 그러한 사실 때문에 더욱 가치가 있다.

본 논문은 에체베리아가 살았던 시대를 가장 생경하게 그리고 있는 작품 『도살장』을 중심으로 1800년대 독립전후의 아르헨티나의 역사적 상황을 이해하고 사상가로서 작가가 추구했던 정치적 이념을 어떻게 실천했는가, 그리고 그 사상이 작품 속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본론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이룬 아르헨티나가 국민이 주인인 근대적 국가 형태를 만드는 것은 너무나 요원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당시 아르헨티나는 계층, 인종, 문화, 지역, 경제적 이해 등 모든 면에서 동질감이 결여돼 있었으며 국토는 식민지 시대 때부터 중앙의 통제를 받기에는 너무 넓었고, 따라서 각 지방마다 지역 유지인 까우디요들이 실질적인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문제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하구이용권 문제였는데 중앙집권제를 지지하는 부에노스아이레스는 하구이용권을 독점하고자 했으며 연방제를 지지하는 지방들은 하구이용권을 분배하기를 원했다. 이렇게 중앙집권파와 연방주의자들 간의 첨예한 대립은 국가를 분열과 내란으로 이끌었으며 이러한 소용돌이는 독재국가라는 돌연변이의 국가형태의 탄생을 필연적으로 예고하는 것이었다.

1871년 작가의 사후에 출판된 소설 『도살장』은 1839년과 40년 사이에 쓰여졌다. 이 시기의 아르헨티나의 도시들은 여러 면에서 진보를 향해가고 있었고 또한 자유주의적이고 프랑스와 영국풍이 유행하는 도시였다. 사르미엔토는 『파꾼도』에서 당시 도시의 분위기를 설명하면서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이들 사이에서 널리 유포되었다. 로베스피에르와 프랑스혁명의회는 좋은 모델이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자신을 일컬어 유럽의 연장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라고 기술하고 있다.<sup>1)</sup> 하지만 도시들은 고립된 섬이었다. 왜냐하면 이 ‘문명’의 도시들은 또한 ‘야만’으로 분류되는 흠먼지 날리는 거대한 들판인 팜파들에 둘러싸인 지역들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시 역시 ‘야만’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프랑스나 영국풍에 물든 아르헨티나의 도시에는 하인, 물장수, 짐승물이꾼, 상인, 우유장수, 뿔나무꾼, 마부, 날품팔이꾼들로 도시에 들어간 gaucho, 몰라토, 흑인들의 거친 풍습이 넘쳐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르미엔토는 이러한 아르헨티나의 현실을 『파꾼도』에서 이렇게 진단한다. “19세기와 12세기가 공존하고 있다. 도시 안에 있는 12세기와 평야안에 있는

1) 카를로스 푸엔테스(1992), 321.

19세기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아르헨티나는 야만에 더 가까운 사회이기도 했다. 특히 독립 후의 잦은 내란과 독재정치 그리고 지방에서 까우디오들의 득세 등의 정치적인 혼란을 고려해 본다면 문명 속에 야만은 더욱 가까이 존재하고 있었다.

### 1. 문명과 야만의 역사: 오월혁명(1810)와 로사스 독재정권(1829-1852)

18세기이후 중남미에서 끄리오요 출신의 엘리트들은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 철학자들의 영향으로 계몽주의와 낭만주의 사상에 물들어 가고 있었으며 특히 미국의 독립선언(1776)이후 프랑스혁명(1789)과 아이티의 독립(1803)은 중남미인들에게 독립에 대한 열망을 부추였다. 아르헨티나는 1806년 영국의 함대를 물리침으로서 아르헨티나 지역인들의 자긍심을 고양시켰으나, 나폴레옹의 스페인 침략(1807-1814)과 스페인왕 페르난도 7세가 나폴레옹에게 인질로 프랑스에 잡혀있었던 사건 등은 중남미 국가들에게 독립에 대한 적절한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나폴레옹이 1808년 자신의 조카를 스페인왕으로 봉하게 되면서 본국의 권위는 중남미에서 회복할 수 없이 실추된 상태였다. 또한 1814년 프랑스에서 돌아온 페르난도 7세의 복고적인 절대왕정은 자국내의 국민을 탄압하면서 식민지와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sup>2)</sup>

에체베리아가 겨우 5살이 되던 해인 1810년 5월 25일 아르헨티나의 독립을 위한 5월 혁명이 일어났다. 리오 데 라 플라타(Río de la Plata) 지역의 해방과 독립에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되는 5월 혁명으로 이듬해인 1811년 제 1회 통치회의(La Primavera Junta de Gobierno)가 만들어

2) 페르난도 7세는 자유주의자들로 이루어진 1812년 까디스의회의의 헌법을 수용하지 않고 이들을 탄압하였고 1820년 리에고의 반란으로 유폐되었다가 1823년 다시 복위하여 1833년 죽을 때까지 탄압과 공포정치를 폈다. 그의 부인 마리아 끄리스띠나는 3살인 그의 딸 이사벨 2세를 대신하여 섭정을 펼쳤으나 페르난도 7세의 동생 카를로스가 왕위 계승권을 주장하면서 카를로스 왕위계승전쟁(Guerra carlista)의 시작되었다. 스페인에서 최고 권력을 위한 찬탈은 세기 말까지 계속되며 이러한 스페인의 정치적 상황은 자국의 정치적 혼란을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식민지에 대한 통치력과 영향력을 점점 약화시켰다.

진다. 그러나 첫 통치회 의장이었던 꼬르넬리오 사아베드라(Cornelio Saavedra)와 통치회의 총리였던 마리아노 모레노(Mariano Moreno)는 독립국가 건설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두 개의 대립되는 안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국가 탄생의 초기부터 아르헨티나가 사상적으로 분열되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813년 1월 31일 헌법 총회(La Asamblea General Constituyente)와 1816년 7월 9일 투쿠만(Tucumán) 의회(Congreso General Constituyente)는 독립선언을 하면서 후안 마르틴 데 뿌에이레돈(Juan Martín de Pueyrredón)을 최고 지휘관으로 임명한다. 이 독립선언은 “스페인 왕실로부터 그리고 다른 모든 외국의 지배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고, 또한 외국의 야욕과 국내의 분열로부터 벗어나 완전히 통합된 국가를 이루기 위한 선언이었다.

그러나 당시 국가는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위협을 배태하고 있었다. 1806년과 1807년에 걸쳐 두 번이나 군사적 침입을 감행했던 영국인들은 정책을 바꾸어 프랑스인들과 함께 경제적, 상업적 식민지 정책을 펴기 시작했으며 브라질은 끊임없이 중남미 각 지역에서 영토 확장을 꾀하고 있었다. 이렇게 각자 자국의 세력을 확장할 욕구를 드러내던 외국 열강들의 위협은 국내의 분열과 함께 국가의 불안정을 증폭시켰다. 국내분열의 대표적인 예는 5월 혁명 이듬해에 바로 나타났다. 1811년 제 1회 통치회의에 반감을 가진 우루과이 지방의 헤르바시오 아르티가스(Gervasio Artigas)가 자신의 마을을 엔뜨레 리오스(Entre Ríos)로 이주하여 해안지방의 강력한 세력으로 부상했다. 그 후 꼬리엔테스(Corrientes), 엔뜨레 리오스, 산파 페(Santa Fé), 코르도바(Cordoba), 라 반다 오리엔탈(La Banda Oriental)주들은 1815년 연방주의 동맹(La Liga Federal)을 형성하고 아르티가스를 ‘자유로운 마을의 보호자’로 칭하며 그를 지지하게 된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보내진 정부의 군대는 아르티가스 정복에 나섰으나 실패하고, 그 책임으로 정부의 지휘관 까를로스 데 알베아르(Carlos de Alvear)가 실추하게 된다. 아직 독립이 불확실하던 시기에 부에노스아이레스와 지방의 까우디요 간의 이러한 대립은 국가를 내전의 상황으로 빠뜨린다. 또한 아르헨티나의 명백한 독립을 선언했던 1816년 7월 9일 투쿠만 의회에서도 정부의 형태에 대한 논쟁은 계

속되었는데 부에노스아이레스와 다른 주들은 상이한 입장으로 대립된다. 따라서 프란시스코 라미레스(Francisco Ramírez)와 에스타니스라오 로페스(Estanslao López)가 지휘하는 엔뜨레 리오스와 산파 페의 군대는 부에노스아이레스를 공격했고 1820년 2월 1일 정부의 론도(Rondeau) 사령관은 해안지방의 까우디요들에 의해 세페다(Cepeda) 골짜기에서 정복당했다. 이처럼 초기에는 연합주의가 승리하는 듯하던 사태들은 주연합의 붕괴와 계속되는 내전으로 인하여 자금의 고갈을 초래했다. 이렇게 주연합이 붕괴되면서 아르헨티나로부터 라 반다 오리엔탈 주가 독립을 선언하게 되는데 이것이 곧 지금의 우루과이(우루과이동방공화국 República Oriental de Uruguay)의 독립과 탄생(1825)이다. 한편 스페인에서는 1820년 리에고(Riego)혁명으로 자유당이 페르난도 7세에 대한 승리를 거두고 왕을 유폐시키는데 이 사건은 모든 식민지들에게 독립에 대한 확신을 불어넣어 주었다. 1824년 아야꾸초(Ayacucho)전투에서 수크레(Sucre)장군은 최후의 스페인 군대와 싸워 승리를 거둔다.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안정을 되찾았지만 까우디요들은 다시 자신들의 지역에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게 되었다. 이 때 주의 농장주이던 후안 마누엘 로사스(Juan Manuel Rosas)는 정치무대에 등장하여 산파 페의 까우디요인 로페스(López)와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동시에 마르틴 로드리게스(Martín Rodríguez)를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통치자 후보로 후원한다.<sup>3)</sup>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성공한 모델을 나라에 확장하고자 했던 전 내무부와 외무부장관이었던 자유주의자 베르나르도 리바다비아(Bernardo Rivadavia)는 1825년 1월 23일 국가의회를 소집하고 중앙집권적 헌법을 공포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1826년 2월 리오 데 라 플라타 연방주의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만들어 다음날 취임했다. 1826년 3월 4일에는 6만의 인구를 가지고, 근대도시로 탈바꿈하기 시작한 부에노스아이레스를 국가의 수도로 지명한다. 그는 교육을 확대하고 교회권력을 제한하고, 근대적인 사유재산제도를 확립했다. 그러나 공유지를 사유화하는 제도는 에스탕시아를 경영하는 지방의 농장주들의 영토확장을 촉진시켰으며 이들을 권력화하는데 이바지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지배를 우선시했던 리

3) Leonor Fleming, 16-19.

바다비아는 짧은 기간 동안 통치(1826-1827)한 후 연방주의자들에게 잡혀 1827년 사임하고 브라질과 평화를 협정한 연방주의 이론가이자 온건주의자인 마누엘 도레고(Manuel Dorrego)가 부에노스아이레스주의 통치자로 선출된다. 그러나 에체베리아가 자신의 시 「아베야네다 *Avellaneda*」에서 ‘머리없는 검객’으로 불렸던 라 바예장군은 브라질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 조국에 돌아왔을 때 자신의 정치적인 상황이 불리해진 것을 보고 나바로(Navarro)에서 도레고를 총살한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정부의 라 바예 장군과 빠스(Paz) 장군의 수차례의 승리는 중앙집권주의자들의 재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었다.<sup>4)</sup>

도레고가 죽자 로사스는 다시 정치무대로 복귀하게 된다. 계몽주의적 합리주의를 계승하는 중앙집권주의자(자유주의자, 엘리트, 도시인)와 주들의 연합체인 연방주의자(농장주, 지방의 까우디요, 가난하고 무지한 자)로 나뉘던 상황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연방주의자 그룹에 속하던 로사스는 라 바예장군에게 중립을 지키도록 하면서 1829년 12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주의 통치자로 선출되어 3년(1829-1832)동안 통치한다. 많은 국민들은 해안지방의 부유한 주들의 이익을 분배되기를 바랐지만 반면 주들은 자신들만의 이익을 보호할 권력이 필요했다. 실제로 아르헨티나 동맹(*La Confederación Argentina*)은 법의 재건자(*El Restaurador Las leyes*)인 로사스의 힘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으며 그에 대한 까우디요들의 충성은 부에노스아이레스를 향한 중앙집권을 만들어내었고 로사스는 국가의 통합을 달성하게 되었다. 아르헨티나에서 로사스의 집권은 분열된 국가의 통일을 의미했지만 또한 길고 긴 독재정치(1835-1852)의 시작이었다.

중종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과 비교되기도 하는 로사스는 gaucho 지역 출신으로 용기와 재주가 뛰어난 인물이었고 원주민이 절대적으로 멸시받던 시대에 원주민과 gaucho들이 터전인 팜파스의 방언의 어휘와 문법을 공부한 인물이었다. 그는 “라바다비아는 하층, 시골사람의 행색을 경멸했다... 그래서 나는 그 가난한 사람에 대한 영향력을 손에 넣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을 관리하고 지도하기위해서 나

4) *Ibid.*, 24-25.

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들의 영향력을 획득하고자 했다. 그래서 많은 노력과 재산, 돈을 바쳐서 내 자신을 그들 가우초처럼 보이게 하고는 그들과 말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대변자가 될 수 있었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5)로사스 독재 정부는 항구와 부에노스아이레스(목장주와 제염업자들), 그리고 주들의 특권을 보호함으로써 국가의 진보를 쇠퇴시키고 누진시켜갔다. 로사스는 자신의 정권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처음에는 1934년 인민재건회, 라 마소르까(La Sociedad Popular Restauradora, La Mozorca)라는 정치경찰조직을 만들었다. 두 번째 통치기간에는 자유주의 경향의 대학과 사상에 탄압을 가했다. 그는 낭만주의자들이 추구하는 강경한 중앙집권주의, 무신론적 자유주의, 엘리트적이고 반 크리오요적인 외래주의를 위협하고 야만스런 사상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타파할 세력으로 간주했으며 무지한 민중을 선동했다. 디에고 알베르디(Diego Alberdi)와 구띠에레스(Gutiérrez)에 의해 익명으로 편집된 잡지 『라 모다 La Moda』지의 제8호에 「우리는 낭만주의자가 아니며 낭만주의자도 되고 싶지 않다」라는 글이 실린 것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대변해 주는 선언이었다. 6)그리고 공무원과 시민들은 통치에 대한 지지를 드러내주는 연방주의를 상징하는 색깔을 가진 리본인 묶은 기장(Divisa Punzo)를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1838년 8월 19일 엔카르나시온 에스쿠라(Encarnación Ezcurra)가 죽었을 때는 상을 표시하는 검은색 어깨띠의 사용도 강요되었다. 또한 지지나 반대를 의미하는 표면적 표시는 수염으로도 알 수 있었는데, 연방주의자들은 거대한 콧수염을 하고 다녔고 에체베리아의 초상화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중앙집권주의자들은 U자형 턱수염을 하고 다녔다. 이렇게 로사스는 국내의 반대파와 대치하면서 주변지역으로부터 위협받는 국경지역을 확고히 함으로써 국가의 통합을 이루어낸다. 또한 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탁월한 외교적 능력을 발휘했다. 그는 프랑스의 포위(1838-1840)와 또 다른 앵글로 프랑스의 포위(1845-1849, 1850)라는 두 번의 국가적 위기를 견뎌내는 교섭능력을 발휘한다. 외국을 싫어하는 것으로 알려진 그의 정치는 그가 영국의 범선

---

5) 카를로스 푸엔테스, 325.

6) Leonor Fleming, 32.

을 타고 달아나 영국에서 1877년 죽을 때까지 25년간의 망명생활을 보낼 수 있었다는 점을 상기해 보면 그의 외교적 역량을 가늠해 볼 수 있다.

## 2. 에체베리아와 오월협회

에체베리아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산 텔모(San Telmo)지역인 알토(Alto) 마을에서 5월 혁명이 일어나기 5년 전인 1805년 9월 2일 9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어린 나이에 비쓰까야(Vizcaya) 출신의 상인 아버지 호세 도밍고 에체베리아(José Domingo Echeverría)의 죽음을 경험한 그에게 폭군 같은 후견인과의 좋지 않은 관계는 평생을 지고 갈 정신질환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에스페비따(Estebita)라고 불리던 그의 성장기의 감정에 영향을 끼친다. 그의 초기 산문들에는 이러한 회의주의와 사춘기적 감수성이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스스로를 돈 후안(Don Juan)이요 방탕아라고 부를 정도로 아르헨티나의 번두리와 매춘의 거리에서 기타를 들고 거리를 휘젓고 다니는 유명한 망나니였다. 1816에서 1817년 사이에 남동생 호세 마리아(José María)와 함께 시의회(Cabildo) 소속의 산 텔모(San Telmo)학교에 다녔지만 불안정한 사회 정치적 상황 때문에 학업에 전념하지 못했다. 1822년에는 남동생 펠릭스(Félix)와 리바다비아가 계몽정책의 일환으로 설립한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의 예비 과정에 입학하여 라틴어, 철학, 그림 수업을 받지만 이듬해인 1823년 말 경제적인 이유에서 학업을 중단하고 레시카 에르마노스(Lezica Hermanos)에서 점원으로 일을 한다. 산업, 농업, 상업, 특히 교육발전 정책에 힘을 썼던 리바다비아의 중앙집권 정부는 당시 아르헨티나에 없는 전문적인 직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문화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젊은이들을 유럽에 파견하는데 이 때 에체베리아가 선발되는 행운을 얻게 된다. 1825년 8월 17일 이미 심장질환과 우울증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체베리아는 라 호벤 마틸데(La Joven Matilde)호를 타게 되었고, 심한 뱃멀미 끝에 프랑스에 도착한다.

에체베리아는 리바다비아의 절친한 친구인 세바스티안 레시카

(Sebastián Lezica)와 펠릭스 피네이로(Felix Piñeyro)의 후원하에 소르본느(Sorbona)에서 정치경제학과 법학, 수학과 지리학, 그림, 기타 등을 공부하고 아테네오(Ateneo)에 참가하여 과학에 대한 공부도 하게 된다. 이 때 그는 파스칼몬테스키외(Pascal Montesquieu), 라므네(Lammenais), 기조(Guizot), 샤토브리앙(Chateaubriand), 비코(Vico), 란도(Lando), 셰익스피어(Shakespeare), 쉴러(Shiller), 괴테(Goethe)의 작품들을 섭렵하는데 특히 바이런(Byron)은 그를 깊이 감동시키고 새로운 세계를 밝혀준 작가로 손을 꼽고 있다. 또한 시작법에 대한 관심은 세르반테스(Cervantes), 프라이 루이스 데 레온(Fray Luis de Leon), 케베도(Quevedo), 로페(Lope), 티르소(Tirso)와 같은 스페인 고전 문학에 대한 연구로 이어져 그에게 문학적 기초를 세워주었다.<sup>7)</sup> 당시 프랑스는 사상적으로는 생시몽(Saint-Simon)의 백작인 앙리크 르브루아(Enrique Rouvroy)와 그의 제자인 푸리에(Fourrier), 콩시데랑(Considerant), 르루(Leroux)에 의해 이론화된 유토피아적 사회주의가 태동하고 있었다. 문학적으로는 마담 드 스탈엘(Mme de Staël)과 샤토 브리앙(Chateaubriand)이 독일로부터 유입된 낭만주의라는 새로운 감성을 수용하여 신고전주의에 맞서고 있었다. 당시 유럽에서는 빅토르 위고가 25세 되던 해 크롬웰(Cromwell)(1827)의 서언으로 낭만주의 사조를 표명하였고 에르나니(Hernani)의 개봉(1830년 2월 25일)은 유명한 신고전주의에 대한 낭만주의의 전투의 장이었다. 1830년에는 라마르틴(Lamartine)의 「조화 Harmonies」가 등장한다. 라마르틴은 4월 1일 프랑스 한림원(Academia Francesa)에서 입회 연설을 하는데 이는 프랑스 낭만주의운동에 있어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라마르틴에 대한 에체베리아의 찬양은 그가 라마르틴의 시를 번역하여 자신의 작품 『가르시아 메로 García Mérou』에 포함시키고 있는데서 볼 수 있다. 라마르틴이나 빅토르 위고는 자신의 작품 속에서 등장인물을 통하여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드러냈던 작가였는데 이들의 전형적인 애국시인으로서의 면모는 에체베리아가 후에 아르헨티나에 귀국한 후에 보여주는 모습이 된다. 에체베리아는 이리네오 포르텔라(Ireneo Portela)나 의사인 호세 마리아 폰세카(José María Fonseca)같은 동향인들과의 모임뿐만 아니라 쉴

7) Ibid., 26. 페르난데스(1997), 209참조.

러와 피테의 작품에 소개된 스위스 독일 출신의 젊은 페데리코 스탕퍼(Federico Stappfer)와의 우정을 쌓으면서 아메리카의 독립에 관심을 갖고 있는 프랑스인들의 모임에도 참가한다.<sup>8)</sup> 당시 중남미의 엘리트들이 유럽을 정신적인 조국으로 간주했던 것처럼 그 역시 「돈 후안의 여행」이라는 시를 통하여 프랑스를 자신의 문화적인 조국으로 찬미하고 있다.

파리, 프랑스의 수도  
저 멀리 각국의 사람들의 머리위에  
풍요로운 광선을 끊임없이 흘뿌리는  
거대한 빛의 천체

그리고 파리에 돈 후안이 간다.  
유적, 극장, 궁궐, 산업과 예술의 경이로움을  
넋을 잃고 바라본다.<sup>9)</sup>

에체베리아는 약 5년 동안의 프랑스 유학 후, 한 달 반의 런던 방문을 끝으로 1830년 6월 28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귀국하게 되는 데 이 시기는 Rosas가 통치한 지 반년이 지난 시기였다. 유럽에서 돌아온 그는 자신이 성장기에 리오 데 라 플라타에서 경험했던 도시, 살롱, 번두리, 팜파 등의 현실적인 모습들을 현실에 대한 이론으로 정리하게 된다. 1830년 7월 8일과 16일자 『라 가세타 메르칸털 La Gaceta Mercantil』지에 고국을 찬미하는 시 「귀환 Regreso」와 「5월의 향연 Cerebridad de Mayo」을 아르헨티나 청년이라는 가명으로 발표한다.<sup>10)</sup> 그는 진보주의자이자 애국주의자인 귀부인 마리끼타 산체스(Mariquita Sánchez)의 살롱에 드나들면서 후에 「37세대」라 알려지게 될 젊은 사람들, 알베르디, 사르미엔토, 구띠에레스 등과 친분을 맺는다. 1837년 이들은 후에 오월협회라고 부르게 될 아르헨티나 젊은 세대 협회(Asociación de la Joven Generación Argentina)를 결성하였다. 이들은 «아르헨티나공화국의 사회

8) Ibid., 28.

9) Ibid., 28.

10) 후에 시집 『위로 Los Consuelos』에 포함된다. 그가 귀국 후 작품을 처음 발표한 이 신문은 로사스가 장악하고 있던 신문이었다.

적 신념을 형성하는 원칙에 대한 이론 혹은 선언, Código o declaración de principios que constituyen la creencia social de la República Argentina»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과 민주주의에 의한 국가 건설과 진보를 향한 행동의 숭고한 의미에 대하여 천명하는데 이를 알베르디, 그리고 구띠에레스가 함께 에체베리아가 기술한다. 이것은 에체베리아가 망명해 있던 1846년 몬테비데오에서 『37년 이래의 뿔라따강지역의 지적 운동에 대한 대략의 회고에 앞선 오월협회의 사회주의 교리 *Dogma Socialista de la Asociación de Mayo precedido de una ojeada retrospectiva sobre el movimiento intelectual en el Plata desde el año 37*』라는 제목으로 출판된다. 오월협회는 총 15개 조항의 사회주의 이론을 통하여 국가가 나아가야 할 정치적인 방향과 이념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1. 협력 2. 발전 3. 우호 4. 평등 5. 자유 6. 하나님은 우리들의 종교적 신념의 중심이자 외곽이며 기독교가 그 법이다. 7. 명예와 희생은 우리의 사회적 행위의 원동력이며 규범이다. 8. 혁명에 대하여 개인이나 집단이 모든 합법적인 영광을 승인한다. 찬탈과 위법의 모든 명성은 무시한다. 9. 5월 혁명의 진보적인 전통들을 계승한다. 10. 우리를 구정부에 종속시키는 복고적인 전통으로부터의 해방 11. 아메리카 정신의 해방 12.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국가의 구성 13. 근본 원리를 토대로 한 친화 14. 통일된 모든 진보적인 교리의 융합 15. 혁명 중 힘을 쟁탈했던 두 무리의 큰 폭도들을 우리와 연결하는 동정심의 희생

아르헨티나 젊은이들의 이념은 『사회주의 교리, *Dogma socialista*』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로사스 독재정권 속에서 파괴되어 가고 있는 5월 독립 혁명의 정신을 되살림으로써 정치적인 독립뿐만 아니라 이제는 문화적인 독립도 완성해야한다는 각성이었다. 이러한 사상적인 탈스페인화로의 시도는 유럽에서 수입된 학문과 사상의 토대위에 중남미적인 것(Americanismo)을 창출하려는 지적 각성에서 비롯되었다. 『파군도 Facundo』의 작가가 아르헨티나의 문제를 중심과 주변이라는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더 나아가 경제적 정치적 인종적 문화적인 개념으로

까지 확장하여 현실의 문제를 이분화하여 설명했다면 후안 알베르디(Juan Alberdi)는 사르미엔토의 생각에 공감하면서 더 나아가 아르헨티나의 문제를 발전과 지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국가의 발전이 항구와 수출과 이민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지역과 수도에 집중되어 있고 내륙의 가난한 도시들은 지체상태에 방치되어 있다고 본 것이다.

김우택은 “유럽에서 도시중산층의 열망의 실현이었던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는 실제로 중남미에서는 독립의 열망으로 변형되었고 사회 경제적으로도 식민지의 구조적 변화보다는 기존의 식민지 협정의 구도를 유지하면서 황실과 이베리아반도인들이 독점하던 권력과 부를 자신들이 물려받으려는 지극히 집단이기주의적 동기들이 강했다. 그런 단적인 예가 독립후 많은 신생국가들이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경제질서가 영속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지적한다.<sup>11)</sup> 또한 이들이 중시했던 카톨릭사상은 스페인이 반카톨릭주의자였던 보나파르트를 몰아내기 위해 카톨릭교의 중세적 사상의 기반을 이용한 것과 같은 궤적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중남미에서 엘리트계급이 주도한 자유주의사상은 시민계급이 형성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중의 참여를 전제로 한 자유민주주의의 성격을 지니지 못한 것으로 비판을 받기도 한다. 실제로 5월혁명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와 평등을 주장했던 아르헨티나 젊은 세대 협회의 이상적 낭만주의는 사르미엔토의 사상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배타적이며 인종적(백인), 계급적(끄리오요) 요소를 지니고 있다. 특히 사르미엔토와 알베르디의 경우는 미국을 모델로 삼고 있으나 이들의 이론은 미국 헌법이 추구하는 자유주의, 다원주의, 민주주의가 아니었다.<sup>12)</sup>

오월협회의 회원들은 자신들의 이념을 문학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대중에게 전달함으로써 이들을 선도하고자 했다. 에체베리아의 경우 파리에서 귀국한 다음 해인 1831년 로사스의 독재정권하에 점점 퇴색되어가는 오월혁명의 정신을 기리면서 로사스의 폭정을 비난하는 시 「쁠라파의 예언 *Profecía del Plata*」을 무기명으로 기고한다. 1832년 10월 아르헨티나의 인쇄소에서 『엘비라, 쵸라파의 연인 *Elvira o la novia de la*

11) 김우택, 39-41.

12) *Ibid.*, 40.

plata』를 출판하는데 이는 스페인의 최초의 낭만주의 시로 알려진 두께 데 리바스(Duque de Rivas)의 『버림받은 모로인 *El moro expósito*』보다 1년 앞선 낭만주의 시이다.<sup>13)</sup> 이 시는 아르헨티나에 낭만주의의 시작을 알리는 시이며 동시에 영국과 독일의 낭만주의 시 스페인으로부터 문학 적 독립의 시작을 의미하는 매우 중요한 시이다. 건강상의 문제로 우루과이의 메르세데스(Mercedes)에서 6개월간 요양을 하기도 한 그는 2년 후인 1834년 9월 『위로 *Los consuelos*』라는 시집을 처음 발간한다.<sup>14)</sup> 사랑과 혁명과 새로운 감수성을 보여준 이 시집은 당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고 그는 사회적 명성을 얻게 된다. 그의 시인으로서의 절정은 1837년 9월 발표된 『포로여인』의 출판으로 이루어지는데, 라틴 아메리카의 자연을 찬양하는 이 시로 에체베리아는 그의 조국 아르헨티나의 시에 생명력을 불어 넣었고 시를 국가적 양식으로 승화시킨다.<sup>15)</sup>

그러나 1938년 프랑스의 부에노스아이레스 항구의 봉쇄는 에체베리아를 포함한 친프랑스 경향의 오월협회회원들을 추방자로 만들게 된다. 로사스 정권이 이들을 국가의 반역자로 규정하고 탄압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회원들은 각자 해외로 망명하여 로사스 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비밀 조직활동을 시작하는데 이들은 로사스 정권에 협력하는 민중들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권리를 실천할 능력이 없는 민중들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과 권리의 제한의 필요성을 보게 된다. 아르헨티나의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면서 대중들은 국가발전에 장애가 되는 존재로 파악되었으며, 따라서 이들은 자유, 평등, 그리고 우애라는 5월 혁명과 낭만주의 이상에 대하여 수정을 가해야만 했던 것이다. 로사스정부의 탄압으로 에체베리아는 몬테비데오에서 망명의 시기(1839-1851)<sup>16)</sup>를 보내게 되는데 로사스가 보낸 오리베(Oribe)장군과 브라운(Brown) 제독이 몬테비데오를 침략했을

13) 정경원, 269.

14) 그는 이미 파리에서 Saint-Beuve에 의해 『위로 *Les consolations*』라는 시집을 발간한 적이 있다.

15) 정경원, 271.

16) 이때 「기타, 한 책의 첫 번째 페이지 *La guitarra o primer página de un libro*」를 집필하여 1849년 파리의 『코레오 데 울뜨리마르 *Correo de Ultramar*』지에 출판된다.

때 작가는 다시 호세 마리아 (José María) 대령이 이끄는 아르헨티나의 지방부대(Región Argentina)에 입대한다. 건강의 악화로 군 생활을 청산한 그는 극시 『추락한 천사 *El ángel caído*』를 집필하는데 이 작품은 작가가 주장하는 정치적 이론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수정을 거듭했던 작품이다. 이 작품은 당시는 연방주의자들이 득세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중앙집권주의자나 그의 추종자들 사이에서 주로 유포되었다.

몬테비데오에서 에체베리아는 절친한 친구들인 알베르디와 구띠에레스의 유럽 여행에 동행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에 시달렸지만 국립역사지리연구소(Instituto Histórico Geográfico Nacional, 1843)의 창설 멤버와 국민교육연구소(Instituto de instrucción pública, 1847)의 회원, 몬테비데오 대학의 고문(1849)으로 활약하면서 호세 마르몰(José Mármol)과 교류하기도 한다. 그가 사랑하는 조국은 1852년 까세로전투후에 로사스의 정권에서 해방을 맞이하지만 이를 보지 못하고 한 해전인 1951년 조국을 그리워하며 몬테비데오에서 쓸쓸한 삶을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그의 사상은 그의 동지였던 사르미엔토를 통하여 현실에서 꽃을 피우게 된다.

### 3. 19세기 아르헨티나의 현실: 『도살장』

에체베리아의 사상은 몬테비데오에서 쓴 『도살장』에서 소설화된다. 낭만주의 시대에 쓰여진 이 소설은 에우헤니오 캄바세레스(Eugenio Cambaceres)의 자연주의 작품 『표류 *Sin rumbo*』(1885)보다 반세기 전에 씌어진 작품이지만 풍속주의, 낭만주의의 팽플릿형식, 역사의 연대기, 증언문학, 사실주의, 자연주의 등의 특성을 고루 보여주고 있다. 오비에도는 그의 작품이 보여주는 이러한 특성들은 당시뿐만 아니라 가까운 전후 세대에서도 유래를 찾아 볼 수가 없으며, 따라서 이 작품이 작가의 사후가 아니라 보다 일찍 알려졌더라면 중남미 단편소설의 방향이 달라졌을 거라고 평가하고 있다.<sup>17)</sup>

『도살장』은 에체베리아와 오월협회회원들이 주장하는 5월 혁명의 정신을 계승하고 복고적 전통으로부터 아메리카의 정신적 해방, 그리고 민

17) José Miguel Oviedo, 28.

주주의적 국가의 구성이라는 『사회주의 교리』의 근간과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작가가 주장하는 문학적 개혁을 통한 스페인 유산의 청산과 새로운 문화의 창달이라는 신생독립국가의 문학가로서의 각성은 로사스독재정권을 규탄하는 소설의 도입부에서 선언된다.

아메리카의 옛 스페인역사가들은 습관처럼 노아의 방주와 조상의 계보에서부터 이야기를 펼쳐나가고, 이것이 우리들의 모범이어야 하지만 내가 말하고자하는 것이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작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그 전형을 따르지 않으려는데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혼동을 주지 않기 위해 여기서는 말하지 않겠다. (91)

『도살장』에는 두 명의 주요인물이 등장하는데 한 인물은 마따시에떼(Matasiète)로 소 떼들과 중앙집권주의자를 도살하는 인물이다. 힘과 활기가 넘치는 마따시에떼는 말은 없고 행동만 있는 인물로 전형적인 팜파의 가우초를 연상시킨다.<sup>18)</sup> 그와 대조되는 또 다른 인물은 젊은 중앙집권주의자이다. 그는 말이 없는 마따시에떼와는 달리 말쑥한 차림에 하얀 얼굴을 가진 젊은이로서 애국심 넘치는 웅변만 있고 행동은 없는 인물이다. 대홍수가 나고 살육이 금지된 사순절에 벌어지는 도살현장에 우연히 지나가게 된 그는 잔인한 권력과 군중 앞에서 이유 없이 희생되는 무기력한 영웅이다.

-저기 중앙집권주의자가 온다!

너무나 의미심장한 말을 들은 빈민들은 갑작스런 상처를 당한 사람처럼 멈추었다.

-U자 모양을 한 저 구레나룻을 좀 봐! 연미복에 기장도 안 달았고, 모자에 상장도 달지 않았군.

-개 같은 중앙집권주의자 놈.

-멋죽인 애송이로군.

-양키처럼 안장위에 앉았어.

-마소르까에게 보내야겠어.

18) “no hablaba y obraba”, 109.

- 가위를 가져와!
- 좀 주물러줘야 겠군.
- 멋죽일려고 권총집도 갖고 있네.
- 중앙집권주의자들은 모두 악마처럼 멋죽이는 놈들이지.
- 마따시에페, 왜 움직이지 않는 거야?
- 안 움직일 이유가 없지.(108-109)
  
- 왜 모자에 상장을 달지 않은 거지?
- 왜냐하면 마음속에 상장을 달고 있기 때문이지.
- 빌어먹을 네 놈들이 죽여 버린 바로 그 조국을 위해.(112)

이 소설이 쓰인 시기가 작가가 망명하기 직전으로 죽음의 위협을 느꼈던 시기인 로스 탈라스(Los Talas)에 체류하던 기간이었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어이없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 젊은이의 모습은 중앙집권주의자이며 반로사스주의자인 작가 자신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도살장』에서 보여주는 중앙집권주의자들(Unitarios)과 연방주의자들(Federales)이 보여주는 대립구도에는 『포로여인』에서 표현되는 백인과 인디오의 대립되는 시각에서처럼 작가 자신의 이데올로기적 신념에 의해 진단된 아르헨티나의 현실이 있다. 『도살장』의 배경은 근대적 모습을 갖추지 못한 옛날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뜻하는 라 그란 알데아(La Gran Aldea)의 변두리로서 추악하고 고단한 일상이 넘치는 곳이다. 이 곳은 당시 엘리트주의에 사로잡힌 낭만주의자들이 즐겨하던 배경이 아니었지만 이러한 배경과 등장인물들의 모습과 행동은 야만으로 규정지을 수 있는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상징적이며 또한 사실적인 묘사를 위한 장치이다. 이 작품의 등장인물들인 백정, 검둥이, 몰라토, 원주민, 어린아이, 청소년, 노인 등은 피와 내장과 고깃덩이가 튀구는 곳에 갈매기 뼈들과 개뼈들과 쥐들 같은 짐승들과 함께 뒤섞여 난장판을 만드는 데 이러한 도살장속에서 사람과 짐승은 구분이 되지 않고 있다. 군중들은 배고픔으로 도적질을 하거나 구걸하러 온 사람들이며 지저분하고 형클어진 모습을 하고 소의 피가 범벅이 된 채 흠친 내장을 질질 끌며 가

는 인물들의 모습은 매우 그로테스크하다. 그리고 이들 사이를 뛰어다니는 개조차 온전하지 못한 병신개이다. 낭만주의와 사실주의를 뛰어 넘는 강렬한 장면들은 카메라로 찍은 듯하게 자세하고 매우 인상적 이어서 자연주의에 가깝다. 로사스정권과 교회의 선동에 세뇌를 당하여 행동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군중들 또한 정권의 또 다른 희생자이지만 작품 속에서나 밖에서 이들에 대한 연민은 존재하지 않는다.<sup>19)</sup> 작가는 이들 모두를 다 같이 비난하고 있다.

당시 도살장의 백정들은 창과 칼로서 로사스연방주의를 전파하려는 자들이었다. 따라서 연방주의가 그들의 머리와 칼에서 나왔다는 것을 생각해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들은 조합의 우두머리인 재건자가 만들어낸 헛소리 때문에 도살자, 백정, 야만인, 도둑이 아닌 모두를 야만스런 중앙집권주의자라고 불렀다. 즉 품위 있고 제대로 된 마음가짐을 가진 자들, 빛과 자유의 친구인 애국자들 모두를 그렇게 야만스러운 중앙집권주의자라고 불렀다.(114)

이 작품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은 사르미엔토가 주장했던 아르헨티나의 근본적 문제인 문명과 야만의 대립이다. 문명화된 도시의 모습을 형상화한 젊은 중앙집권주의자는 도시에 침입하여 발전을 방해하는 존재이며, 시골의 야만성을 대표하는 도살장의 천민들(chusma)에 의해 조롱과 학대를 받으며 죽어간다. 민중들은 모두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빈민’의 상태이다. 이들은 난장판 속에서 어린아이가 목이 잘려 죽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이러한 상황에 너무 익숙한 듯 무감각하다 못해 “피물은 내장을 뺏으며 환호하고 춤추는” 도살자(로사스)의 기계로 전락한 사람들이다.

이 경우는 인간을 하나의 기계로 바꾸는 것이고, 기계의 원동력은 기계가 된 사람의 의지가 아닌 교회와 정부의 의지이다. 자유롭게 숨쉬고

19) 근대 아르헨티나에서 원주민과 가우초들을 ‘청소’하고 이들의 땅을 빼앗아 유럽 이민자들에게 나누어준 것처럼 이들은 중앙집권주의자들에게도 타도해야 할 ‘야만’의 대상일 뿐이다. 이처럼 당시 아르헨티나의 현실에서 문명은 실현될 수 없는 하나의 이상이며 야만은 일상적인 평범이었고 또한 문명의 이름으로 야만이 행해지고 있었다.

거니는 것, 심지어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조차 당국의 허락 없이는 금지되는 그 날이 올 것이다. 조금 더 했던 덜 했던 신앙심이 깊은 우리 할아버지 때의 행복한 시절에는 그랬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5월 혁명이 그 시기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96)

곧 그는 십자가 모양으로 묶여졌고 사람들을 그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그 때 젊은이의 입과 코에서 끓어오르는 피가 터져 나왔고, 죽 흘려서 탁자아래 사방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야만스러운 중앙집권주의자가 지 분에 못 이겨 죽어버렸군.- 누군가 말했다.

-핏물이 강을 이루었어.-다른 누군가가 말했다.

-가엾은 악마, 우리는 그저 녀석을 갖고 좀 놀고 싶었을 뿐인데, 너무나도 심각하게 받아들였어.-

재판관은 호랑이처럼 인상을 찌푸린 채 말했다.(114)

에체베리아는 이 작품을 로사스독재정권의 실체를 고발하고 자신과 동지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만들고 있다. 이 작품에서 아이러니는 작품전체를 이끄는 장치이다. 아르헨티나로 상징되는 도살장은 소만 죽이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장소도 된다. 이 곳에서 법은 도살자의 손에 달려있고, 살인마는 민중들의 환호를 받는 영웅이다. 화자는 반어법을 사용하여 “도살장에서 살인자들은 도덕을 수호하는 신앙심이 깊은” 인물이며, 이러한 도덕심과 신앙심과 살인은 도살장(로사스정부의 아르헨티나)을 유지하는 제도로 표현하고 있다. 화자는 로사스정권의 야만성을 다음과 같이 직설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어쩔 수 없는 금식으로 빼만 앙상히 남은 개 몇 마리가, 진흙에 싸여 있는 간을 누가 먹을 것인지를 정하려고 그 소년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방법을 썼다. 이 방법은 야만스럽지만 간단하며, 우리나라에서 개인과 사회의 권리, 문제는 다 그런 식으로 처리된다.(103)

재건자만큼이나 자애로운 정부는 그러한 난동이 폭동의 근원이 된다고 믿고 그 소동의 탓을 야만스러운 중앙집권주의자들에게 돌리며 경계를

했다. 연방주의자들의 불경이 이 땅에 신의 노여움의 산물로 홍수라는 재난을 끌어들었다.(95)

개인의 소유인 양심과 위장의 열쇠를 갖고 있다. 특권을 누리는 위장과 신성한 교회법에 속하는 위장이 있다는 것, 교회가 위장의 열쇠를 갖고 있다는 것은 참 이상했다.(96)

스페인의 영향을 받은 전통적인 서술기법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작가의 의도는 다양한 장르의 문학적 형태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5월 혁명의 정신을 계승하고 로사스정권을 규탄하기 위한 목적을 위하여 스페인의 영향을 받은 연대기작가들의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로사스정권의 극에 달한 모습을 규탄하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마치 말세의 심판을 예언하는 묵시록적인 어법을 사용하고 있다. 1822년과 1823년 사이에 쓰인 그의 산문들을 살펴보면 그가 이미 파리를 경험하기 전에 이미 지역적 풍경과 자연으로 감정의 이입 등의 낭만주의 경향들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독립을 맞이한 조국의 독립된 문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신생독립국의 작가로서의 각성은 유럽과 스페인문학의 모방에서 벗어나 다양한 기법들이 혼합된 독창성을 보여주고 있다. 프레밍은 이 작품이 총체적으로 “무례와 폭력이 지배하는 피투성이의 수렁에서 만난 독창성, 즉 그의 미학적 이념이 거부하는 모든 것. 잔혹한 현실사이에서 이러한 모순적 마찰로부터 도살장의 긴장이 분출된다”<sup>20)</sup>고 설명하고 있다.

### III. 결론

알칼라 갈리아노가 신생국가의 문학적 빈곤함에 대하여 설파했을 때, 에체베리아는 자신의 시 『위로』의 서문을 통하여 그의 의견에 반격을 하면서, 스페인문학의 진부함을 비판하고 시가 갖고 있는 고유의 영

20) Leonor Fleming, 72.

향을 회복하기 위하여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과 풍속, 그리고 사회로부터 발생하는 정열을 표현해야만하며, 이를 위하여 “이상한 영향의 고리”들을 극복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중남미인들의 시는 “안데스산맥처럼 자유롭고 비옥한 땅처럼 다양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는 “만일 스페인의 용광로가 프랑스와 같다면 ...중남미인들은 스페인으로 향했을 것이다. 그러나 스페인 사람들은 더 보잘것없고 하찮게 만드느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면서 “문학적으로는 스페인사람이 되고 정치적으로는 아메리카인이 되는 것은 부조리하다”고 주장한다.<sup>21)</sup>

국가의 격동의 시간 속에서 태어나고 죽어야했던 에체베리아에게 낭만주의는 국가를 변혁과 진보로 이끄는 정치적 신념이며, 신고전주의가 지배하는 스페인 문학으로부터 해방되어 중남미 고유의 독립된 문학을 창설하는 매우 유용하고 절대적인 도구로 있었을 것이다.

---

21) Teodosio Fernandez, 31.

## 참고문헌

- 김우택(2003),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와 문화』, 서울, 도서출판 소화.
- 카를로스 푸엔테스(1997), 라틴아메리카의 역사, 서성철역, 서울, 까치.
- 정경원(2001), 『라틴아메리카문학사』, 서울, 태학사.
- 우석균(1991), “도밍고 파우스티노 사르미엔토: 국민국가형성의 딜레마”,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와 사상』, 이성형 편, pp.156-176.
- Dill, Grundler, Gunia, Meyer-Minnemann(eds.)(1994), *Apropiaciones de realidad en la novela hispanoamericana de los siglos XIX y XX*, Madrid, Iberoamericana.
- Echeverría, Esteban(1986), *El matadero. La cautiva*, ed. Leonor Fleming, Madrid, Cátedra.
- Fernandez, Teodosio(1997), *Teoría y crítica literaria de la emancipación hispanoamericana*, Alicante, Instituto de Cultura Juan Gil-Albert.
- Gonzalez Stephan, Beatriz(1987), *La Historiografía Literaria del liberalismo Hispanoamericano del siglo XIX*, Habana, Casa de las Américas.
- Henríquez Ureña, Pedro(1994), *Las Corrientes literarias en la América Hispánica*, 1° reimp, Santafé de Bogotá, D.C.
- Miliano, Domingo(1991), *Literatura hispanoamericana*, Tomo I, Caracas, Monte Avila Editores.
- Oviedo, José Miguel(1997), *Historia de la Literatura hispanoamericana*, Tomo II, Madrid, Alianza.
- Peña Gutiérrez, Isaías(1994), *Manuel de La literatura Latinoamericana*, Bogotá, Educar Editores S, A.
- Rodríguez O, Jaime(1996), *La independencia de la América española*, México, F.C.E.
- Varios(1992), *Historia de Iberoamérica*, Tomo III, Madrid, Ediciones Cátedra.

배지완

고려대학교 서어서문학과

E-mail: jiwan@korea.ac.kr

논문접수일: 2004년 10월 11일

심사완료일: 2004년 11월 15일

게재확정일: 2004년 12월 10일